

배포일시	2021년 8월 24일
보도일시	즉시

“전기차 시장 선점이 미래성장 동력” 민주연구원-기업경제연구소 릴레이 청책(聽策) 간담회 추진

- LG경제연구원과 청책 간담회(2차) 개최
 - 전기차 시장(배터리)의 성장과 LG의 역할, 기타 경제현안 과제 등 주제 논의
-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비중 증가 및 차세대 전지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자 증가 예상
 - 전기차·친환경차 보급·확산, 차세대 전기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 확대 지원방안 등 논의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업 경제연구소 릴레이 청책 간담회의 일환으로 LG경제연구원을 만난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 원장 및 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전기차 시장(배터리)의 성장과 LG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타격을 입었지만, 전기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현재 전기차와 전기배터리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기차와 전기배터리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며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은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 보조금 지원, 전지 가격 하락 등으로 전기차 수요 증가는 비가역적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일본·중국·미국 등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전기자동차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생산시설 증설에 나서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확고한 시장 주도권을 위해서는 전기차·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전지관련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연구원은 한국경제가 미래 전략산업의 정책-공약 개발의 일환으로, 기업의 경제연구소들을 차례로 찾아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반도체, 연료전지 및 배터리, 바이오, 수소전기차 등 미래-전략산업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듣기 위한 청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노웅래 원장과 민주연구원 관계자들은 지난 8/19(목) SK경영경제연구소(소장 염용섭) 관계자들과 ‘수소사업’, ‘배터리 사업’, ‘RE100’ 등을 주제로 ‘청책 간담회(제1차)’를 진행한 바 있다.

8/25(수)에는 LG경제연구원(원장 김영민), 8/27(금) 삼성경제연구소(소장 차문중), 9월 초순 HMG경영연구원(원장 김건) 등 4대 기업 싱크탱크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대기업 경제연구소(원) 측에서는 소장(원장) 포함 주요 간부진 5~6명이 각각 참석해 미래-전략산업을 비롯한 현안 및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청책 간담회 현장의 기자 출입은 제한될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청책 간담회> 일정

- 8.25.(수) 15:00 LG경제연구원
- 8.27.(금) 15:30 삼성경제연구소
- 9월 초순 HMG경영연구원(현대차그룹) 추진